

인니·태국 이어 몽골까지... 카카오뱅크 '금융영토 세계화'

윤호영 대표, 기자 간담회
“축적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카카오뱅크 스코어’ 몽골에 전수 시장 규모보다 성장 가능성 중요”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몽골로 금융영토를 확장한다. 이곳에서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중저신용자 신용평가모델(CSS)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몽골 금융기관에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에 투자했다. 슈퍼뱅크는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현지 시가총액 1위 디지털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튀르키예 M 시아한 슈퍼뱅크 대표는 “출시 9개월 만에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지난 2월 기준 64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은 단순한 투자지원이 아니라 디지털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가 8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올해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뱅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모든 은행 산업에 의미있는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SCBG그룹과 합작해 가상은행 ‘뱅크X’를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 몽골 공략 포인트는 ‘신용평가’

현재 몽골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 구조 속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신용카드·대출 이력 등 전통적 신용정보가 부족한 데

다 비정형 소득 비중이 높아 금융권이 리스크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틈을 파고들어 카카오뱅크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델을 앞세워 몽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단순히 현재 시장 규모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현지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본다”며 “몽골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초기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선언

윤 대표는 또 인공지능(AI) 기술로 모두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앱 기능이 많아질수록 고객은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지는 ‘확장의 역설’이 나타난다”며 “복잡한 금융 문제를 AI가 먼저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2700만 고객의 앱 기반 데이터와 금융 특화 대형언어모델(LLM)을 결합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결제홈’에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가이드를 제공하고, 투자 탭에는 AI 기반 투자 에이전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현재 카카오톡 상담 챗봇이 전체 고객 상담의 70%를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결제 내역을 분석해 지출 절감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금융이 고객의 생활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6개월째 공석... LH 신임사장 재공모

주택공급 절벽 현실화... 혼선 거듭 16일까지 임기 3년 사장 공모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나섰다. 주택 공급 절벽이 이미 현실화됐고, 전임인 이한준 사장이 퇴임한 지 1년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혼선만 거듭되고 있다. 이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작년 7월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공석 상태다.

LH는 8일 오후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주택공급 정책 역시 차질을 빚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향후 5

년간 공공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중 LH가 담당하는 물량이 55만6000호로 41.2%에 달한다.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취임했다가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7월 사의를 표했다. 수리되지 않던 사표가 받아들여진 것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작년 10월 말이다. 다음달 바로 신임 사장을 공모해 임추위가 작년 말 후보로 3명을 추천했지만 정부가 모두 LH 내부 인사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에는 사장 직무대행이었던 이상욱 부사장이 물러나면서 현재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대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금융, 생산적 금융 대전환 나서

GS건설 등 4곳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이 GS건설, 지베스코자산운용, 디씨브릿지, 자이C&A와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재 GS건설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강성목 하나금융 부회장 겸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각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금융은 GS건

설 등과 상호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자금 지원 ▲투자 및 펀드 조성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회 발굴 및 공동투자 개발 등 사업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업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투자, 임대, 운영)이 구축된 GS건설의 관련 자회사들도 참여한다.

하나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자본 투자를 넘어, 초기 개발 단계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주가 급락에 채권금리 급등 중동 리스크 ‘금융시장 요동’

한국은행, 3월 금융시장 동향
외국인 증시 40.5조 매도 ‘사상최대’

중동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난 3월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주가는 급락하고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5%로 2월 말보다 0.41%포인트(p) 상승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88%로 0.30%p 올랐다. 회사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한은은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장기금리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은 더 크게 흔들렸다. 코스피는 2월 말 6244에서 3월 말 5052로 12.0% 급락했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1193에서 1037로 13.1% 떨어졌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특히 3월 중 외국인 순매도는 국내주식을 40조5000억원 순매도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 흐름을 보면 가계대출은 2월 4000억원 감소에서 3월 5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2월 3000억원 증가에서 3월 포함으로 돌아섰다. 전환의 배경은 기타대출이다. 기타대출은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5000억원 늘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로 주담대는 힘이 약해진 반면, 금융시장 변동성 속 투자자금 수요가 기타대출에 반영된 셈이다.

기업대출은 3월에도 상당폭 증가했다. 은행 기업대출은 2월 9조6000억원 증가에 이어 3월에도 7조8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대기업대출도 3조4000억원 늘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의 기업여신 확대 기조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회사채 상환자금 조달수요 등이 배경으로 꼽혔다.

수신 측면에서는 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자산운용사에서는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3월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20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29조1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주식형펀드는 잔액 기준 18조8000억원 줄었고 MMF도 4조7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평가액을 제외하면 3월 중 주식형펀드 신규자금은 9조6000억원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1인당 2개 ‘반입제한’

국토부, 제각각 글로벌 규정 통일

오는 20일부터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국가별로 제각각이었던 규정이 통일되면서 이용객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다만 국가별, 항공사별 규정이 달라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된 국제기준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줄이고 화재 유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가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는 160Wh 용량 이하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우리은행 2050 탄소중립 위해 ‘NEXT 50’ 과제 선정

우리은행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넷 제로) 달성 및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ESG 경영 전략인 ‘NEXT ESG’를 수립하고 ‘NEXT 50’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NEXT ESG’는 우리금융그룹의 ESG 비전인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구체화했다. ▲탄소배출 감소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 ▲ESG 전문성 강화와 실천 ▲투명한 ESG 공시와 지배구조 확립 등 ESG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핵심과제인 ‘NEXT 50’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재활용 확대 ▲친환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50가지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다.

심성진 우리은행 ESG상생금융부 부장은 “ESG는 환경보호를 넘어 고객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NEXT ESG’ 전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